

양위탕(養胃湯)

이야기

이진화
부평한방병원장

111 찍 마른 30대 부인이 누렇게 뜬 얼굴로 진료실에 찾아와 하소연을 한다. 어려서부터 하루 두 끼 이상은 먹어 본 기억이 없는데, 이유인즉 도무지 무엇이 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안 식구들이 특식을 준비해서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배가 고프고 입에서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먹지 전혀 손이 가지 않으며, 조금만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매스꺼우며 심하면 토해 내기도 한다.

평소 호박죽, 찹쌀죽 한 공기면 하루 끼니를 해결한다고 하니 그 정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니 기운이 있을 리 없어서 항시 눕고 싶고 백화점 쇼핑만 갔다 와도 몸이 가라앉는다고 한다.

요즘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식사 후 매스껌고 토해 내는 일이 다반사이며 몸은 전혀 기운이 없어서 휘청거리고 어지럽고 삶의 의욕이 없다고 한다.

혈액검사를 해보니까 가벼운 빈혈 외에는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흔히 말하기를 보통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3대 요소인 영양, 휴식, 운동과 의미가 상통하기도 하는 이 말은 인체의 가장 기본

적인 생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삶의 행복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엇을 먹느냐는 행위는 입에서 느끼는 달콤한 맛과 식후의 포만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행복감을 주며 또 이를 통해 재물욕, 권력욕, 성욕 등 다양한 욕구의 대리 만족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먹느냐는 기본적인 생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양 섭취의 문제 뿐 아니라 정신적 위축, 우울증 등 심신에 걸친 전반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의학에서 위(胃)는

수곡지해(水穀之海)로 부숙수곡(腐熟水穀) 작용을 하여,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을 위에서 썩히고 익히는 작용-부숙(腐熟)-을 통해 인체에 소화 흡수된다고 설명한다.

즉 모든 음식물은 위(胃)로 들어와서 위장의 열과 명문화(命門火)의 작용에 의해 썩혀지고 익혀져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분해되는 소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일단 이렇게 소화된 음식물의 성분 중 정미(精微)로운 기운은 비장(脾臟)을 통해 흡수되어 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잘먹고 잘자고
 잘싸는 것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3대요소인
 영양, 휴식, 운동과 의미가 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체에 필요한 기혈(氣血)이 되고 나머지 찌꺼기 성분
 은 소장, 대장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된다.

상술한 부인의 경우는 위장의 기운이 약한 상태인
 위기허증(胃氣虛證)으로 진단되었는데 위
 장의 기운이 약하면 위에서 음식물을 소
 화시킬 기운이 없으므로 위에서 음식이
 당기지 않고 입에서 맛을 모르게 된다.

또 먹으면 답답하고 더부룩하여 내려
 가지 않는 느낌이 들고 심하면 토하기
 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신의 기혈이 부
 족하게 되는데 기가 허하면
 온몸이 무기력하고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의욕이 없게 되며 혈이 허하면 어지럽고 몸이 마르며
 얼굴에 혈색이 없고 피부가 거칠게 변하게 된다.

이처럼 위장의 기운이 약한 사람들에게 한의학에
 서는 양위탕(養胃湯) 계열의 한약을 처방하는데 이러
 한 약은 위의 기능을 돋우어 입맛을 돋우며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이에 따라 이차적인 나머지 증상들은 자
 연적으로 해결된다.

양위탕 중 양위진식탕(養胃進食湯)은 감정 변화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항시 입맛이 없고 소화
 가 안 되는 전형적인 위기허증(胃氣虛證)의 경우에
 쓰며, 향사양위탕(香砂養胃湯)은 신경만 쓰면 바로
 입맛이 없고 체하는 소위 신경성 위염에 효과적이다.
 이는 향부자(香附子)·사인(砂仁)과 같은 약이 감정



변화에 의해 울체 된 기를 소통시키기 때문이다.

인삼양위탕(人蔘養胃湯)은 위장 기운이 약하면서
 팔다리가 쭈시고 아프며 오한기를 잘 느끼는 사람에
 게 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양위탕류의
 처방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장의
 기운을 배양함에 있어서는 공통적
 인 작용을 한다.

이 부인은 어려서부터 전혀 식욕
 이 없는 전형적인 위기허증으로 판
 단되어 양위진식탕을 투약하고 같
 은 목적으로 위정격(胃正格)의 침
 과 중완혈(中完穴) 뜸 치료를 병행
 하여 현재는 식욕도 돋고 기운
 도 나며 생활도 점점 적극적

으로 변해 가고 있다.

임상에서 항시 느끼는 것이, 사람이 산다고 다 똑같
 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항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게 사는 삶은 활력 있고 적극적으로 사는 삶
 에 비해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시 느낀다.

위장의 기운을 배양해서 식욕과 소화 기능을 개선
 해 주는 양위탕이 삶의 질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의사 자신도 종종 놀랄 때가 있다. “비
 위(脾胃)는 후천(後天)의 근본”이라는 한의학 이론의
 의미가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7